

경북지역 대학생의 전통음식에 대한 태도(I)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 이용도 및 라이프 스타일과의 관계-

김 성 미

계명대학교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Attitud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the Kyung-book area on the traditional foods(I) -The evaluation, the utilization and the life style-

Kim, Sungm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find out what the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yung-book area think about Korean traditional foods, how much they use them, and how their life styles affect their estimates on traditional foods. They evaluated the aspects of traditional foods highly in the order of nutrition(6.07), taste(5.96), appearance(5.40), color(5.33), preservation after cooking(4.82), cost(4.63), and cooking method(4.43). Female students had higher estimates on traditional foods than male stud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between the students raised in rural and urban areas if they had the same educational level. Regardless of gender, Kimchi was most preferred followed by boiled rice, pot stew, grilled fish, and beef out of 25 traditional foods. In the correlation among the evaluation factors and uses of traditional foods, those with high evaluation on traditional foods($r=0.282, p<0.01$) and the families with higher income($r=0.316, p<0.01$) made more use of traditional foods. For the life style, leisure-valuing type was the greatest part(39.4%) in male students and altruistic type(31.9%) in female students. The altruistic type comprised of the greatest part(34.8%) among the students raised in urban areas and the leisure-valuing type(40.0%) among those raised in rural areas. The altruistic type students put high values on taste, nutrition, appearance, color, and preservation after cooking of the traditional foods. The egocentric type gave high values on cost and cooking method.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ypes in every item. The altruistic type put the highest and the leisure-valuing type put the lowest value on traditional foods, respectively, however, i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 individuality-centered type made the most use of traditional foods, whereas the leisure-valuing type made the least($p<0.05$).

Key words: traditional food, evaluation, utilization, life style

I. 서 론

한 나라의 전통음식은 그 지역이나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 나라의 전통음식은 전통사회에서 사용된 음식을 일컫는다. 우리 나라에서 전통사회란 서구문화의 도입 이전의 사회, 즉 개화기 이전의 사회를 나타내며, 개화기라는 것은 1870년대 이후의 19세기를 두고 하는 말이므로¹⁾, 이 시기 이전의 사회를 전통사회로 보고, 이때까지 사용되어온 음식들을 전통음식으로 본다. 물론 문화는 분열되고 통합되면서 변화해 가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해간다. 음식문화를 재

료 등의 유형적인 측면과 행동·사고방식·기호 등의 무형적인 측면으로 볼 때, 무형적인 측면의 변경이 적을수록 새로운 요소는 받아들여지기 쉬운 것이다²⁾. 개화기 이후 많은 새로운 식품이 우리 나라에 전래되어 1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음식들이 많지만 이들 중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전통음식으로 볼 수 없는 음식들이 많다. 우리의 전통음식은 어디까지나 음식문화 가운데 유형적인 측면이나 무형적인 측면 중 어느 한가지는 개화기이전의 것이어야 한다. 커피는 고종 19년(1882년)부터 구미제국과 수호조약이 체결되기 시작하자 외국사신들에 의하여 궁중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³⁾. 전

래된 지 100여 년이 지나고 궁중에서 사용되었으나 커 피는 우리의 전통음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개화기 이전 전통사회에서 사용된 음식과 개화기 이후 외국에서 전래된 식품들이 지금까지 사용된 우리의 식품재료와 함께 섞여 만들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전통적 방법으로 조리되어져 변형된 음식들을 전통음식이라 보고 져 한다. 정 등⁴⁾은 서울의 전통음식을 “서울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서울 사람들이 향유해온 고유의 음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통음식은 그 지역의 기후와 지형에 의한 식품의 종류와 생활환경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 지역의 생태계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발달하게 된다. 우리 나라 전통음식의 특징을 든다면 주식과 부식의 구별이 분명하고 평면 전개형의 상차림 등으로 볼 수 있다.

윤⁵⁾은 우리 나라의 주·부식 분리시대를 삼국시대 말 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쌀이 널리 보급되고 쌀밥이 주식으로 되었을 무렵에 비로소 주식과 부식이 구별된 형태로 식사형식이 형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으로 보았고, 신라·고려는 한국음식의 고유한 전통이 일단 완성되었던 시대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강⁶⁾은 우리 나라에서 쌀밥이 주식으로 된 시기란 대단히 모호한 기준이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삼국시대 말보다도 훨씬 이후로 내려야 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주식과 부식의 분리는 부족국가시대에 이미 그 조전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때 소형용기가 이미 이때 나타나기 시작하여 공동식기의 시대에서 개인식기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조선전기를 한식의 발달시대, 조선후기를 한식의 완성시대로 보았다. 또 하나의 특징인 평면전개형의 상차림은 조선조 중엽의 승유주의에 의한 제찬(祭饌)의 진설이 습속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이⁷⁾는 보았다. 그러나 개화시대에 이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서구문물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변화는 식생활문화에 많은 다양화를 가져왔다. 특히, 지난 30여 년간, 우리 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식생활을 크게 변하게 하였고, 특히 서구화로의 변화는 대학생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가치관까지 달라지게 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 전통적인 식생활 속에 조상전래의 슬기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적절한 영양적 균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생은 각자의 개성표현을 원하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고,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는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와 이용도에 차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 나라의 문화형성에 중요한 구성원인 대학생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한가는 전통음식의 바람직한 전승에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전통음식에 대한 연구로는 전통 식생활에 대한 의식 및 지식, 기호도에 관한 연구^{7,8)}, 지식 및 평가에 관한 연구^{9,10)}, 세시음식에 관한 연^{11,12)}, 주부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식생활 양식 등이 보고되고 있다¹³⁾.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전통음식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와 그 이용도를 알아보고, 이들이 대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하여, 앞으로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는 199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경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녀의 비는 각각 47.9%와 51.6%이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예비조사는 1998년 11월 5일부터 12월 사이에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3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농촌소재 대학과 도시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2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230부를 회수하였으며, 부실 기재 등 연구에 부적합한 것을 제외한 216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 이용도 및 라이프 스타일과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일반특성 및 사회·환경적 특성 조사

대학생의 일반 특성 및 사회·환경적 특성으로 성별, 종교, 가족의 월 소득, 가족구성원의 형태, 거주형태, 어머니의 학력 등을 알아보았다.

(2)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 분석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맛, 영양, 모양, 색의 조화, 경제성, 조리방법, 조리 후 저장성 등을 ‘매우 나쁘다’ 1점, ‘매우 좋다’를 7점으로 한 Likert scale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3) 전통음식의 이용도 조사

전통음식의 이용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통음식 25종의 섭취빈도를 알아보았다. ‘전혀 먹지 않는다’ 1점, ‘가끔 먹는다’ 2점, ‘보통이다’ 3점, ‘자주 먹는다’ 4점 및 ‘매우 자주 먹는다’ 5점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4) 라이프 스타일 유형조사

본 연구 대상자의 생활 유형은 조형오¹⁴⁾의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분류 및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의 문항들은 대학생에 적합한 21개의 문항으로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각각 항목들은 5점 척도의 Likert Scale로 구성하였으며, 라이프 스타일 유형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인 분석을 추출하였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주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여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라이프 스타일 유형을 분류하였고, 군집 분석결과 나타난 각 라이프 스타일 집단에 대한 해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라이프 스타일 유형별로 사회·환경적 특성과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이용도 등을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의 처리는 SPS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회환경적 특성 등은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전통음식의 평가, 전통음식의 이용도 등의 남녀 대학생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였고, 이들 변인들의 종교상의 차이점과 생활 유형별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였고 추후 검정은 Duncan test로 검정하였다. 라이프 스타일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들을 유사성이 큰 집단으로 묶기 위해 군집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사회·환경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환경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대학생이 72.1%, 농촌지역의 대학생이 27.9%이었다. 가족의 한달 총 소득은 남학생은 199만원, 여학생은 214만원으로, 여학생의 가족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핵가족이 78.2%, 확대

가족이 21.8%이었으며, 거주형태는 단독주택 64.4%, 아파트 25.5%, 기타 10%를 나타내었다. 본인의 종교는 불교 21.8%, 개신교 22.7%, 카톨릭 9.7%, 기타 38.4%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교육기간 6년 20.8%, 9년 35.6%, 12년 30.6%, 16년 11.6%이었고 남학생 어머니의 학력은 평균 9.7년, 여학생의 어머니학력은 10.6년으로 여학생의 어머니학력이 높았다.

2.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

전통음식에 대한 7개 평가 항목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보면 영양(6.07), 맛(5.96), 모양(5.40), 색의 조화(5.33), 조리 후 저장성(4.82), 경제성(4.63), 조리방법(4.43)의 순서로 나타났다. 음식자체의 영양, 맛, 모양,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

Variables		Total (n=216)	Male (n=104)	Female (n=72)
Region raised	Urban	155(72.1)	73(70.9)	82(73.2)
	Rural	61(27.9)	31(29.1)	30(26.8)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Total	205.5±103.4	199.8±95.2	214.1±114.9
Religion	Buddhist	47(21.8)	21(20.2)	26(23.2)
	Protestant	49(22.7)	24(23.1)	25(22.3)
	Catholic	21(9.7)	7(6.7)	14(12.5)
	Miscellaneous	83(38.4)	41(39.5)	42(37.5)
Family pattern	Nuclear	169(78.2)	78(75.0)	91(81.3)
	Extended	47(21.8)	26(25.0)	21(18.8)
Housing style	Detached house	139(64.4)	72(62.9)	67(59.8)
	Tenement house	12(5.6)	3(2.9)	9(8.0)
	Apartment	55(25.5)	26(25.0)	29(25.9)
	Miscellaneous	10(4.6)	3(2.9)	7(6.3)
Education level of mother (years)	6 under	45(20.8)	27(26.0)	18(16.1)
	7-9	77(35.8)	41(39.4)	36(32.1)
	10-12	66(30.6)	24(23.1)	42(37.5)
	13 over	25(11.6)	11(10.6)	14(12.5)

Table 2. The evaluation on the traditional foods

Variables		Taste	Nutrition	Appearance	Color	Economy	Cooking	Preservation	Total
Total		5.96±1.13	6.07±1.07	5.40±1.36	5.33±1.36	4.63±1.34	4.43±1.44	4.82±1.51	5.24±0.99
Male		5.79±1.13	5.79±1.19	5.13±1.22	5.00±1.41	4.74±1.49	4.55±1.52	4.67±1.67	5.09±0.99
Female		6.12±0.94	6.34±0.86	5.65±1.21	5.64±1.24	4.53±1.19	4.31±1.36	4.96±1.33	5.37±0.70
p-value		0.033*	0.000***	0.002**	0.001***	0.249	0.231	0/160	0.021*
region raised (male)	urban	5.77±1.28	5.84±1.13	5.16±1.13	5.05±1.34	4.78±1.50	4.60±1.50	4.78±1.53	5.34±1.11
	rural	5.83±1.37	5.67±1.35	5.07±1.44	4.90±1.60	4.73±1.44	4.47±1.59	4.43±2.01	5.33±1.18
p-value		0.815	0.517	0.714	0.617	0.883	0.682	0.400	0.970
region raised (female)	urban	6.06±1.01	6.30±0.93	5.67±1.24	5.70±1.26	4.56±1.16	4.37±1.39	4.49±1.29	5.53±1.03
	rural	6.27±0.69	6.47±0.63	5.60±1.16	5.48±1.18	4.43±1.30	4.17±1.29	5.13±1.43	5.43±0.94
p-value		0.226	0.355	0.786	0.431	0.618	0.496	0.418	0.650

*p<0.05, **p<0.01, ***p<0.001.

색의 조화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저장성, 경제성 및 조리방법 등은 음식자체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2).

1993년에 보고된 이 등¹⁰⁾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식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편

이었으나 경제성, 만드는 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낮게 평가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평가 점수는 전보다 높아져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조리방법도 7점의 중간점인 3.5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전통문화를 고수하려는 사회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 and the evaluation on the traditional foods

Variables		Taste	Nutrition	Appearance	Color	Economy	Cooking	Preservation	Total
Religion	Buddhist	6.04±1.18	6.19±0.88	5.40±1.10	5.43±1.02	4.74±1.03	4.55±1.46	5.04±1.57	5.68±0.86
	Religion	5.90±1.29	6.02±1.28	5.39±1.40	5.33±1.51	4.35±1.35	3.96±1.43	4.65±1.64	5.16±1.39
	Catholic	5.95±0.80	6.10±0.94	5.57±1.03	5.33±1.11	4.81±1.40	4.57±1.40	4.48±1.54	5.45±1.05
	Miscellaneous	5.96±1.11	6.07±1.09	5.43±1.26	5.27±1.55	4.73±1.51	4.61±1.46	4.86±1.39	5.46±0.97
	F-value	0.128	0.213	0.117	0.128	1.094	2.359	0.912	1.884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	200 under	5.83±1.30	5.87±1.13	5.41±1.23	5.38±1.36	4.54±1.45	4.23±1.49	4.69±1.56	5.42±1.12
	200 over	5.96±1.00	6.09±0.96	5.30±1.18	5.21±1.27	4.82±1.35	4.66±1.38	4.78±1.41	5.44±0.80
	P-value	0.495	0.209	0.580	0.426	0.222	0.067	0.716	0.095
Education level of mother (years)	6 under	5.96±1.11	5.98±0.98	5.40±1.25	5.36±1.30	4.47±1.36	4.51±1.31	4.91±1.59	5.31±0.93
	7-9	6.01±1.15	6.04±1.12	5.35±1.21	5.26±1.33	4.71±1.49	4.48±1.49	4.71±1.49	5.49±0.93
	10-12	5.79±1.18	6.11±1.10	5.42±1.27	5.46±1.30	4.75±1.17	4.53±1.33	4.80±1.51	5.42±1.23
	13 over	6.24±0.97	6.28±1.02	5.44±1.33	5.28±1.72	4.68±1.41	4.00±1.76	4.96±1.37	5.40±1.26
	F-value	1.072	0.474	0.055	0.277	0.330	0.921	0.293	0.280

Table 4. The utilization on the traditional foods

Variables		Total	Male	Female	p-value
Rice & Gruels	plain rice	4.23±1.02	4.29±1.04	4.17±1.00	0.380
	rice with mixed grain	2.94±1.06	2.87±1.04	3.00±1.08	0.386
	cooked rice with assorted vegetable	2.93±0.88	2.89±0.87	2.96±0.89	0.559
	Noodles	2.79±0.88	2.68±0.82	2.90±0.82	0.161
	Dduk soup	2.67±0.86	2.50±0.86	2.82±0.83	0.006
	pumpkin gruels	2.66±0.89	2.25±0.81	2.29±0.82	0.608
	Mandu soup	2.66±0.89	2.74±0.95	2.59±0.84	0.213
	red beans gruel	2.14±0.67	2.17±0.69	2.13±0.66	0.652
Soup, stew & side dishes	Kimchi	4.41±0.83	4.38±0.86	4.43±0.81	0.686
	Stew	3.98±0.78	3.93±0.80	4.01±0.76	0.417
	grilled fish	3.26±0.93	3.13±0.93	3.38±0.92	0.049
	beef soup	3.25±0.83	3.23±0.82	3.27±0.84	0.709
	grilled beef	3.23±0.91	3.12±0.90	3.32±0.91	0.097
	vegetable soup	3.21±0.89	3.29±0.93	3.14±0.85	0.214
	seasoned vegetables	3.20±0.94	2.94±0.92	3.44±0.90	0.000
	stewed fish	3.01±0.85	2.90±0.78	3.11±0.90	0.076
	stewed meat	2.80±0.82	2.68±0.80	2.91±0.82	0.040
	braised meat	2.77±0.74	2.67±0.76	2.87±0.71	0.042
	sauted foods	2.76±0.88	2.68±0.92	2.83±0.83	0.200
	chicken soup with gingseng	2.64±0.76	2.46±0.68	2.80±0.79	0.001
	boiled or steamed	2.27±0.05	1.90±0.91	2.59±4.07	0.100
	vegetables with meat & fish				
Juck(sauted meat, vegetables)	1.96±0.76	1.90±0.81	2.00±0.72	0.030	
Dessert	Beverages	2.42±0.74	2.32±0.71	2.51±0.77	0.069
	Korean cookies	2.07±0.73	2.00±0.74	2.13±0.72	0.254
Total		2.89±0.43	2.81±0.45	2.97±0.40	0.014

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평가는 남녀 대학생사이에 맛, 영양, 모양 및 색의 조화를 유의적으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전통음식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성장지역별로 비교하였을 때 도시 및 농촌에 거주하는 남녀 학생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동일한 학력의 경우, 성장지역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전통음식이용도

25종의 전통음식이용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남녀 전체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식은 김치였으며, 그 다음 주식류에서 흰밥, 찬물류에서 찌개류, 생선구이 및 쇠고기 국 등의 순서이었다. 김치는 라면, 국수, 비빔밥 등과 같은 흰밥 이외의 주식과 함께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흰밥 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치는 오늘날 식품학적, 영양학적 측면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슬기를 발휘한 걸작품이라 평가되고 있다^{15,16)}. 김치는 발효에 의한 채소의 저장수단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되는 식품이며 세계 곳곳에서 한국김치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이제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식품이 되어 가고 있다^{4,17)}. 문 등¹⁸⁾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60.4%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김치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응답해 김치는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 음식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후식류의 음청류와 한과류는 낮은 이용도를 나타내어 대학생들에게 선호되는 음청류와 한과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통음식 이용도를 가족의 월 소득에 따라 비교하면 소득이 높은 집단이 유의적으로 이용도가 높았다 ($P < 0.01$). 남녀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의 경우, 소득이 높은 집단이 이용도가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여학생의 경우 소득이 높은 집단이 유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였다($P < 0.05$). 종교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불교를 가진 집단이 이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카톨릭, 기독교 순서로 이용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표 5).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 전통음식 이용도, 가족의 월 소득, 어머니학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 6에 나타내었다. 전통음식을 높이 평가 할 때, 전통음식이용도가 높았다 ($r = 0.282, p < 0.01$). 가족의 월 소득이 많을수록 전통음식이용도가 많았으며($r = 0.316, p < 0.01$),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 때 가족의 수입이 많았다($r = 0.273, p < 0.01$).

Table 5. The utilization on the traditional food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Total	Male	Female
Region raised	urban	2.89±0.41	2.83±0.42	2.94±0.41
	rural	2.88±0.46	2.74±0.51	3.01±0.36
	p-value	0.881	0.409	0.395
Household income (10,000Won /mon)	≥ 199	2.78±0.46	2.71±0.55	2.86±0.35
	200≤	3.01±0.47	2.91±0.39	3.17±0.54
	p-value	0.004**	0.060	0.011*
Family pattern	Nuclear	2.88±0.37	2.84±0.43	2.90±0.32
	Extended	2.94±0.57	2.72±0.50	3.19±0.56
	p-value	0.517	0.240	0.037
Family religion	Buddist	2.98±0.49	2.89±0.44	3.05±0.52
	Protestant	2.87±0.47	2.76±0.55	2.96±0.38
	Catholic	2.95±0.37	2.94±0.52	2.95±0.32
	Miscellaneous	2.87±0.39	2.80±0.42	2.93±0.34
	p-value	0.496	0.760	0.726
Education level of mother (years)	6 under	2.85±0.33	2.88±0.37	2.80±0.25
	7-9	2.81±0.44	2.72±0.48	2.90±0.37
	10-12	2.99±0.50	2.87±0.55	3.05±0.47
	13 over	2.98±0.27	2.88±0.30	3.07±0.23
	F-value	2.531	0.927	2.177

* $p < 0.05$, ** $p < 0.01$.

4. 라이프 스타일 유형조사

라이프 스타일은 복합적 가치체계에 의하여 특정 지워지고, 집단적으로 공유되고 있으면서 타 집단과 차별화될 수 있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식행동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¹⁹⁾되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보는 항목들은 개인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식생활양식, 여가 및 취미생활, 지적활동 등에 관하여 5점 척도의 Likert Scale로 구성하였다. 21개의 항목들에 대하여 직각회전에 의한 주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7개의 주 요인들만이 아이젠 값(eigen value)이 1 보다 크게 나타났고, 7개 요인들의

Table 6. The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Variables	evaluation	utilization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of mother
evaluation	1.000			
utilization	0.282**	1.000		
household income	0.091	0.316**	1.000	
education level of mother	0.010	0.148*	0.273**	1.000

* $p < 0.05$, ** $p < 0.01$.

Table 7. Discriminant loadings by varimax rotation

	Factors						
	pursuit for beauty	scarstic social thought	personalistic	eating style westernized	Effort for interlectual development	leisure valuing	Restoration for morality
V1	.727	-2.610E-02	.121	.230	8.955E-02	4.796E-02	-4.859E-02
V2	.798	-.107	7.769E-02	.171	2.447E-02	1.177E-02	-7.894E-02
V3	.710	-.105	.166	.179	-7.914E-03	7.762E-02	7.710E-02
V4	.706	.176	-1.188E-02	6.940E-03	-8.389E-02	3.321E-02	-.144
V5	5.181	-2.397E-02	4.890E-02	.777	-.182	-.130	7.085E-02
V6	.233	-4320E-03	-2.474E-02	.773	.106	-3.698E-02	-.123
V7	.192	7.037E-04	.208	.628	.278	.242	-3.503E-02
V8	-.106	2.355E-02	6.794E-02	2.117E-02	.799	-7361E-02	.278
V9	9.172E-02	2.296E-02	3.020E-02	5.137E-02	.878	7.689E-02	-8.264E-02
V10	4.518E-02	-7.775E-02	6.732E-04	-.206	7.649E-02	.800	2.618E-03
V11	9.716E-02	1.577E-02	9.378E-02	.192	-6.204E-02	.825	-1.684E-02
V12	-6.084E-02	-1.766E-02	.821	-6.429E-02	2.746E-02	1.974E-02	1.144E-02
V13	.107	9.916E-02	.692	4.481E-02	7.192E-02	-8.788E-02	2.946E-02
V14	.103	2.679E-02	.715	7.866E-02	1.686E-02	9.638E-02	-2.531E-02
V15	.115	1.492E-02	.519	.256	-1.226E-02	8.311E-02	2.079E-02
V16	-4.675E-02	.636	-7059E-02	4.970E-02	-6.224E-02	-7.385E-02	.247
V17	-3.189E-02	.851	7.667E-02	3.908E-02	-1.539E-02	-7.468E-02	-4.415E-02
V18	.155	.633	.146	-.103	.109	-.104	.112
V19	-.118	.784	-3.932E-03	-2.202E-02	2.729E-02	.184	4.354E-02
V20	9.887E-04	.299	2.330E-03	7.100E-03	.194	6.766E-03	.733
V21	-.130	4.679E-02	3.020E-02	-7090E-03	-1785E-02	-1.317E-02	.862

Table 8. Mean values of various factors by cluster analysis

Variables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F-value
factor 1 (beauty)	3.26(.61) ^a	2.47(.52) ^b	3.39(.70) ^{acd}	3.38(.49) ^{acd}	38.059**
factor 2 (scarstic social thought)	2.91(.69) ^a	2.22(.46) ^b	3.40(.71) ^c	2.92(.64) ^{ad}	32.803**
factor 3 (personalistic)	3.80(.64) ^a	3.36(.67) ^b	4.19(.62) ^c	2.55(.51) ^d	67.294**
factor 4 (eating style westernized)	3.65(.56) ^a	2.15(.56) ^b	1.83(.63) ^{bc}	2.23(.62) ^{bd}	87.032**
factor 5 (Effort for intellectual development)	3.43(.53) ^a	2.92(.54) ^b	3.48(.64) ^{ac}	3.29(.63) ^{acd}	10.769**
factor 6 (Leisure valuing)	3.53(.59) ^a	3.82(.54) ^b	3.68(.72) ^{ab}	3.44(.61) ^{abc}	4.908**
factor 7 (Restoration for morality)	4.28(.54) ^a	4.51(.51) ^a	4.50(.61) ^{ab}	4.08(.57) ^{ac}	8.248**
Variables	Personalistic	Leisure valuing	Egocentric	Altruistics	

*P<0.05, **P<0.01.

전체 편차에 대한 설명력은 63%로 나타나 주요인들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요인들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 요인은 '외적 미의 추구'로 명칭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요인은 '냉소적 사회관'을, 세 번째 요인은 '개성 중시'를, 네 번째 요인은 '서구적 식생활'을 나타내며, 다섯 번째 요인은 '지적개발 노력'을, 여섯 번째 요인은 '적극적 여가활동'을, 일곱 번째 요인은 '도덕성 회

복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Cronbach's alpha에 의하여 각 요인들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외적 미의 추구'는 신뢰도 계수가 0.75, '냉소적 사회관'은 0.73, '개성중시'는 0.66, '서구적 식생활'은 0.68, '지적 개발 노력'은 0.66, '적극적 여가활동'은 0.57, '도덕성 회복에 의 욕구'는 0.60이었다.

각각의 요인들이 라이프 스타일 유형간의 차별화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6개의 주 요인들이 모두 유형 차별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 요인들의 판별적재량을 살펴본 결과, 요인 7은 판별분석에서 Stepwise로 할 때 제외되었으므로 유의한 변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집의 이름을 정함에 있어 이 변수는 해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판별분석의 결과 원래의 집단 케이스 중 95.8%가 바르게 분류되었음을 보였다. 첫 번째 집단은 지적개발능력, 개성중시 등이 두드러지므로 '개성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적극적 여가활동이 현저하여 '여가중시형'으로, 세 번째 집단은 냉소적 사회관, 개성중시, 지적개발능력 등이 두드러져 '현실 부정적 자기 중심적형'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집단은 개성중시와 적극적 여가활동 등은 가장 낮은 성향을 보이거나 외적미 추구하고 지적개발능력 등이 약간 우세한 경향을 보여 '타인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5. 라이프 스타일 유형별 사회·환경적 특징

표 9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사회·환경적 특성들을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여가중시형'이 39.4%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타인추구형'이 42.9%로 가장 많았다. 남녀 전체로는 '여가중시형'이 31.9%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P < 0.001$). 성장지역별로 보면 도시에서는 '타인추구형' 34.8%, 농촌에서는 '여가중시형' 40.0%로 가장 많았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초등학교까지 성장한 지역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유형은 여성에게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도시에서 성장한 여성은 타인추구형이 51.2%, 농촌에서 성장한 여성은 '개성중시형'이 33.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남성의 경우, 도시와 농촌 모두 '여가중시형'이 가장 높아 도시 성장 남성 34.3%, 농촌 성장 남성 53.0%를 나타내었다. 고등학교까지 성장한 지역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소득이 많은 집단은 '타인추구형'이었고, 소득이 낮은 집단은 '개성중시형'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임 등¹³⁾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월 소득은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자녀의 라이프 스타일 형성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학력이 낮은 어머니를 둔 자녀에서 '여가중시형'이 많았고 학력이 높은 어머니의 경

Table 9. General characteristic by life style (%)

Variables		Personalistic	Leisure valuing	Egocentric	Altruistic	Significance
Gender	Male	31(29.8)	41(39.4)	16(15.4)	16(15.4)	$\chi^2=22.5^{***}$
	Female	17(15.2)	28(25.0)	19(17.0)	48(42.9)	
	Total	48(22.2)	69(31.9)	35(16.2)	64(29.6)	
Household income		192.3±103.4	201.0±105.4	202.4±79.6	229.4±116.9	F=0.816
	Buddhist	9(19.1)	14(29.8)	11(23.4)	13(27.7)	$\chi^2=10.813$
	Protestant	13(26.5)	14(28.6)	6(12.2)	16(32.7)	
	Catholic	9(42.9)	5(23.8)	4(19.0)	3(14.3)	
	Miscellaneous	15(18.2)	31(38.6)	12(14.5)	23(28.9)	
Region raised	Urban	31(20.0)	45(29.0)	25(16.1)	54(34.8)	$\chi^2=7.307$
	Rural	16(26.7)	24(40.0)	10(16.7)	10(16.7)	
Education level of mother (years)		9.77 ^{ab} ±2.82	9.44 ^a ±2.83	10.74 ^b ±3.42	10.73 ^b ±3.06	F=2.742*

* $p < 0.05$, *** $p < 0.001$.

Table 10. The region raised by life style

Variables		Personalities	Leisure valuing	Egocentric	Altruistic	Significance
Male	urban	24(32.9)	25(34.3)	12(16.4)	12(16.4)	$\chi^2=3.420$
	rural	6(20.0)	16(53.4)	4(13.3)	4(13.3)	
Female	urban	7(8.6)	20(24.4)	13(15.8)	42(51.2)	$\chi^2=14.161^{**}$
	rural	10(33.3)	8(26.7)	6(20.0)	6(20.0)	
Total	urban	31(20.0)	45(29.0)	25(16.1)	54(34.9)	$\chi^2=7.307$
	rural	16(26.6)	24(40.0)	10(16.7)	10(16.7)	

** $p < 0.01$.

Table 11. The evaluation by the life style

Variables	Personalitics	Leisure valuing	Egocentric	Altruistic	F-value
Taste	5.94±1.14	5.88±1.17	5.83±1.32	6.13±0.97	0.720
Nutrition	6.06±0.91	5.93±1.19	6.15±1.28	6.20±0.89	0.801
Appearance	5.38±1.10	5.29±1.26	5.46±1.46	5.50±1.21	0.347
Color	5.17±1.31	5.14±1.46	5.35±1.41	5.64±1.24	1.784
Economy	4.56±1.34	4.39±1.39	4.89±1.47	4.80±1.22	1.520
Cooking	4.38±1.23	4.25±1.46	4.71±1.64	4.50±1.46	0.899
Preservation	4.83±1.63	4.55±1.54	4.86±1.44	5.09±1.40	1.452

Table 12. The evaluation and utilization on the traditional foods by life style

Variables	Personalitics	Leisure valuing	Egocentric	Altruistic	F-value
Evaluation	5.19±0.74	5.06±0.83	5.33±1.12	5.41±0.83	1.963
Utilization	3.00±0.34 ^b	2.74±0.35 ^a	2.92±0.50 ^{ab}	2.95±0.48 ^{ab}	4.271*

*p<0.05.

우, '자기 중심적형'과 '타인 추구형'이 많았다(p<0.05). 임 등¹³⁾의 연구에서도 주부의 학력은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장한 지역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유형은 여성에게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에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다. 즉 도시 성장 여성은 '타인추구형'이 51.2%, 농촌성장 여성은 '개성중시형'이 33.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남성의 경우, 도시와 농촌 모두 '여가중시형'이 가장 높아 도시남성 34.3%, 농촌남성 53.0%를 나타내었다(표 10).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전통음식에 대한 각 항목별 평가를 표 11에 나타내었다. 전통음식의 맛, 영양, 모양, 색의 조화 및 조리 후 저장성 등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형은 '타인추구형'이었고, 경제성과 조리 방법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는 형은 '자기 중심적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집단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라이프 스타일 유형별 전통음식평가 및 전통음식이용도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전통음식에 대한 총체적 평가에서 '타인추구형'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여가중시형'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통음식이용도에서는 '개성중시형'이 가장 이용도가 높았고, '여가중시형'이 가장 이용도가 낮았다(p<0.05).

V. 요약 및 결론

경북지역 남녀 대학생들이 전통음식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와 이용도를 알아보고, 이들이 대학생들

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대상 학생 가족의 월 소득은 남학생은 199만원, 여학생은 214만원으로, 여학생의 가족 월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어머니학력은 9.7년, 여학생의 어머니학력은 10.6년으로 여학생의 어머니학력이 높았다.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에서는 음식자체의 영양, 맛, 모양, 색의 조화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저장성, 경제성 및 조리방법 등은 음식자체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전통음식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25종의 전통음식 중에서 남녀 전체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식은 김치였으며, 주식류에서 흰밥, 찬물류에서 찌개류, 생선구이 및 쇠고기 국 등의 순서이었다.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 전통음식 이용도, 가족의 월 소득, 어머니의 학력 등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전통음식을 높이 평가할 때, 전통음식 이용도가 높았고, 가족의 월 소득이 많을수록 전통음식 이용도가 많았다.

라이프 스타일 유형을 알아보는 항목들은 개인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식생활양식, 여가 및 취미생활, 지적 활동등으로 구성하였다.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사회·환경적 특성들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여가중시형'이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타인추구형'이 가장 많았다. 성장지역별로 보면 도시에서는 '타인추구형'이, 농촌에서는 '여가중시형'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까지 성장한 지역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유형은 여성에게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도시 성장여성은 '타인추구형'을 농촌 성장여성은 '개성중시형'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학력은 자녀의 라이프 스타일 형성에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어, 학력이 낮은 어머니를 둔 경우, '여가중심형'이 많았고 학력이 높은 어머니를 둔 경우, '자기중심적형'과 '타인추구형'이 많았다. 라이프 스타일 유형별 전통음식에 대한 총체적 평가에서 '개성중시형'이 전통음식 이용도가 가장 높았고, '여가중시형'이 가장 이용도가 낮았다.

위의 결과들에서 남녀 대학생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는 예전보다 호전되는 분위기이며,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전통음식 이용도가 높았으므로, 누구나 적은 돈으로도 손쉽게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통음식 개발 및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이민식: 최근사에 비친 한국의 실체. 국학자료원(1996).
2. 이성우: 식생활과 문화. 수학사(1998).
3. 강인희: 한국식생활사. 삼영사(1995).
4. 정혜경, 이정혜: 서울의 음식문화. 서울학 연구소(1996)
5. 윤서석: 한국식품사연구. 신광 출판사(1974).
6. 이성우: 한국식생활의 역사. 수학사(1993).
7. 이효지, 오미야: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의식·지식·기호도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3**(4): 65(1995).
8. 구난숙: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4): 357(1995).
9. 이경애, 장영애, 김우경: 남녀대학생들의 한국전통음식에 지식 및 평가에 관한 연구-지식및 섭취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3): 187(1993).
10. 이경애, 장영애, 김우경: 남녀대학생들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지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4): 183(1993).
11. 허성미, 한재숙: 세시풍속 및 세시음식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동아시아식 생활학회지, **3**(2): 83(1993).
12. 심영자, 김정선: 재미 한인 주부들의 한국 명절음식에 대한 인식. 한국조리과학회지, **14**(2): 148(1998).
13. 임정빈, 서병숙, 장유경: 라이프스타일과 식생활양식. 대한가정학회지, **28**(3): 33(1990).
14. 조형오: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분류 및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7**(2): 223(1996).
15. 이성우: 中·韓·日에서의 김치類의 變遷과 交流에 관한 研究. 한국영양식량학회지, **4**(1): 71(1975).
16. 이서래, 전향숙: 한국고유의 발효식품에 관한 연구-발효식품의 소비현황과 전망-. 한국음식문화 연구논총, **1**: 137(1988).
17. 주영하: 김치, 한국인의 먹거리. 도서출판공간(1994).
18. 문혜진, 이영미: 서울·경기지역 초·중·고등학생의 김치 섭취 실태 및 태도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4**(1): 29(1999).
19. 문수재, 윤혜준, 김정현, 이양자: 한국 대학생의 편의식품에 대한 인지도, 이용 정도 분석 및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3**(3): 227(1998)

(1999년 12월 19일 접수)